

캐 나 다

2003. 9

나수엽

(syna@kiep.go.kr)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9,215,430 km²
- 인 구: 3,070만명(2000년 7월 기준)
- 기 후: 한냉대륙성 기후
- 시 간 대: GMT보다 3.5~8시간 늦음.

□ 행 정

- 공식국명: 캐나다(Canada)
- 수 도: 오타와(Ottawa)
- 행정조직: 10개 州(Province)와 2개 직할지(Territory)로 구성

□ 정 치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II세 영국여왕
- 총리: 장 크리티앵(Jean Chretien)
- 의회형태: 양원제(하원:301석, 상원:112석, 2001년 차기 선거예정)
- 주요정당: 자유당(하원 155석), 개혁당(하원 60석)

□ 사회·문화

- 민 족: 영국계(28%), 프랑스계(23%), 독일계(3%), 이탈리아계(3%),
- 언 어: 영어(61%), 불어(24%), 영·불어(3%), 기타(12%)
- 종 교: 카톨릭(45.7%), 개신교(36.2%)
- 교 육: 의무교육(12년)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63년 1월 14일 정식 국교수립
- 협정체결: 무역통상협정(1966년), 통신장비조달협정(1999년)
- 특기사항: 한국전 참전(육군 3개보병대대, 해군구축함 3척, 공군 1개 비행중대)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주요지표	단위	2002년	3/4	4/4	2003. 1/4	2/4
인구	백만명	31.4	-		-	
경상 GDP	십억달러 ¹⁾	1,154.9	1,164.6	1,182.0	1,211.8	1,206.6
1인당 경상GDP	달러	23,538	-		-	
실질 GDP증가율	%	3.3	2.7	1.6	2.6	-0.3
실업률	%	7.7	7.7	7.5	7.3	7.7
소비자물가상승률	%	2.2	2.3	3.9	4.3	2.6
연방재정수지(GDP대비)	%	1.3				
수출	십억달러 ¹⁾	414.3	105.7	104.6	105.4	100.2
수입	" ¹⁾	356.5	91.1	91.0	89.7	85.4
무역수지	십억달러 ¹⁾	57.8	14.5	13.6	15.8	14.8
경상수지	" ¹⁾	23.4	5.3	4.9	6.9	5.1
외환보유고	십억달러	37.2	36.6	37.2	35.9	36.7
환율	C\$/달러	1.5704	1.5761	1.5591	1.4761	1.3525

주 : 1) 캐나다달러(C\$)기준

2) 회계연도 기준

자료 : 1) 캐나다 통계청

2) 캐나다 재무부

2. 향후 경제전망

주요지표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실질 GDP증가율	%	2.0	3.3	3.5	3.2	3.0
소비자물가상승률	%	3.0	1.3	1.6	1.9	2.0
경상수지	십억달러	16	18	21	23	29

자료 : Global Insight, Canada, 2003. 9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단위 : 십억 캐나다달러, %)

	2000	2001	2002	2003. 1~3	
				금액	비중
<주요 수출품목>					
기계 및 설비	107.8	99.7	94.7	52.9	22.3
자동차 및 부품	98.1	92.9	97.1	52.0	21.5
공산품 및 금속, 화학	67.2	66.8	69.4	38.2	16.0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등)	53.2	54.7	50.4	37.6	17.7
임산물(목재, 펄프 등 등)	42.2	39.3	36.7	19.6	8.1
<주요 수입품목>					
기계 및 설비	122.7	112.4	105.8	58.1	28.6
자동차 및 부품	77.4	72.5	81.4	46.3	22.8
공산품 및 금속, 화학	70.5	68.5	68.8	38.9	19.3
기타 소비재	40.1	42.9	46.4	27.2	13.2
농수산물	18.6	20.4	21.7	12.9	6.2

자료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나. 지역별 수출입

(단위 : 십억 캐나다달러, %)

	2000	2001	2002	2003. 1~7	
				금액	비중
<주요 수출대상국>					
미국	359.6	351.1	348.4	199.6	83.9
EU	22.1	22.0	21.2	13.5	5.7
일본	10.3	9.4	9.7	5.9	2.5
기타 OECD	10.2	10.3	11.0	7.0	2.5
<주요 수입대상국>					
미국	267.7	255.1	254.7	142.8	70.3
EU	33.4	35.0	36.1	20.9	10.7
기타 OECD	18.9	18.6	19.5	11.7	5.7
일본	11.7	10.6	11.7	6.6	3.2

자료 : 캐나다 통계청, Canadian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2003. 5

다. 캐나다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

(단위 : 십억 캐나다달러, %)

	2000	2001	2002
<해외직접투자> 연 간	70.5	54.9	43.9
미국	39.0	54.9	15.5
EU	15.9	33.7	13.3
일본	3.7	6.4	1.6
기타	12.0	1.4	13.5
<외국인직접투자> 연 간	99.0	42.5	33.6
미국	16.5	38.7	25.1
EU	76.9	1.1	4.7
일본	0.3	0.8	1.1
기타	5.3	1.9	2.7

자료: 캐나다 외무·대외교역부(DFAIT), Trade and Economic Analysis Division, 2003. 5

4. 한·캐나다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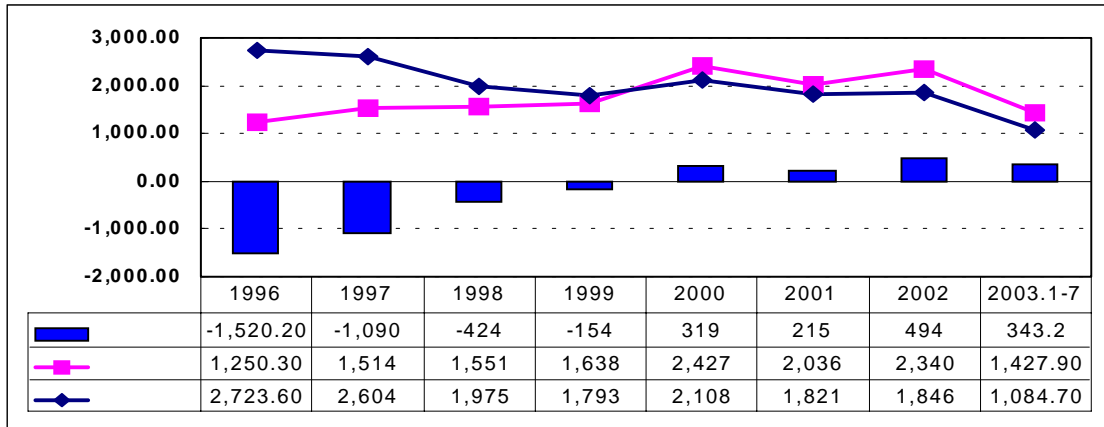
가. 교역

□ 교역비중

- 캐나다는 한국의 15번째 수출시장임.(2002)
- 한국은 캐나다의 8번째 수출시장임.(2002)

□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업종별 수출입 내역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수 출		품 목	수 입	
	2002	2003. 1~7		2002	2003. 1~7
자동차	810.6	507.8	제지용 원료	344.9	209.6
의류	138.3	68.0	석탄	208.1	96.3
무선통신기기	190.4	70.8	유선 통신기기	112.7	51.2
컴퓨터	103.8	75.6	알루미늄	102.3	85.4
고무제품	72.7	49.2	석유화학섬원료	83.5	61.6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나. 투자

□ 양국의 연도별 對캐나다 투자/對韓 투자 추이

<韓國의 對캐나다 直接投資推移(총투자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6	합계
금액(백만달러)	46.4	18.6	36.5	24.9	5.5	6.3	673.2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동향』, 2002. 09.

<캐나다의 對韓 直接投資推移(도착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 1~8	합계
금액(백만달러)	61.6	342.8	288.2	26.7	10.1	940.6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2002. 6

□ 한국의 對캐나다 업종별 해외투자(총투자기준, 2003년 6월 누계기준)

(단위: 백만 달러)

업 종	금 액
제조업	394.0
광업	137.7
도소매업	104.4
부동산 및 서비스업	20.0
숙박음식업	7.9
농림어업	5.4
건설업	1.5
운수창고업	1.7
통신업	0.5
합 계	673.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IV. 경제현안

1. 캐나다의 경제현황

가. 미국경제와의 동조화

- 대미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경제는 최근 들어 경제성장, 물가, 실업률, 재정수지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미국 경제 동향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양국간 동조화 경향은 2000년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캐나다 경제의 약세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2001년 초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심화되었음.
- 캐나다 경제는 지난 1996년 이후 2000년 4/4분기까지 22분기 연속 장기호황 국면을 지속하였음.
- 동 기간동안 캐나다 경제는 연평균 4.25%의 실질GDP증가율을 시현하였으며, 고용창출 확대, 가처분 소득 증가, 생산성 향상, 저물가, 재정수지의 건전화 등 건전한 거시경제 기조를 유지하였음.
- 그러나, 2000년 4/4분기부터 캐나다 경제는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국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2001년 3/4분기 미국과 동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1년 전체적으로는 10년만에 가장 낮은 1.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침.
-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9.11 테러사태 이후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약화됨에 따라 소비지출 감소와 기업투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함.

□ 미국경제가 2001년 최악의 침체상황에서 벗어나 2002년 상반기에 성장세를 회복함에 따라 캐나다 경제도 2001년 4/4분기부터 점차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 2001년 4/4분기에 미국 경제성장의 플러스 전환과 맞물려 소비지출의 호조에 힘입어 3.8%의 실질GDP증가율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이 같은 성장세는 2002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2002년 전체적으로는 3.3%의 성장률을 달성함.

나. 최근 캐나다 경제현황

□ 금년 1/4분기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던 캐나다경제는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함.

□ 이라크전을 앞두고 미국경제 회복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투자, 소비심리 위축으로 2002년 4/4분기에는 1.6%의 성장률에 그쳤으나, 금년 1/4분기에는 2.6%의 성장률을 기록함.

□ 금년 1/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은 총국내수요가 회복되었기 때문임.

- 이라크전에 따른 불안심리가 미국경제에 비해 제한적으로 나타나 소비지출은 3.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업의 총투자 역시 5%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함.

- 수출은 5.7% 감소하였는 바, 이는 이라크전 여파와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의 경기부진에 기인함.

□ 그러나 캐나다 통계청의 발표(8.29)에 따르면 캐나다경제의 금년 2/4분기 실질GDP증가율이 -0.3%를 기록.

- 이는 SARS의 영향과 광우병 발발 등의 여파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캐나다경제는 지난 2001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

- 3월 이후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을 중심으로 발발한 SARS 피해는 2/4분기 캐나다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함.

-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급감과 소매지출의 위축을 초래하였는 바, SARS는 최근 2개월 동안 캐나다 GDP의 0.5~0.8%를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됨.

□ 5월 알버타 지역에서 발생한 광우병(BSE)도 캐나다 경제에 악재로 작용 하였음.

- 이로 인해 쇠고기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관련 산업들의 피해가 속출 하였음.

2. 대외경제현안

□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출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5%에 이르고 있음.

- 주요 대외교역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및 설비, 공산품, 임산물 등 임.

- 수출의 86%를 미국이 차지할 정도로 대미의존도가 높으며 큰 폭의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이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으로 캐나다의 총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에 달함. 이와 아울러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국인 바, 비중은 약 67%에 이르고 있음.
- 전통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캐나다는 특히 對美 무역의존도가 86%에 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시아 및 중남미 시장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역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시행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음.
- 1996년 이스라엘, 칠레와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중남미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위한 협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수출 및 투자촉진을 위해 총리가 직접 총괄하는 무역사절단(Team Canada)을 연례적으로 주요 교역국 또는 중점 협력 대상국에 파견하고 있음.
- 캐나다는 대외교역을 통한 자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 주요 시장진출 확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캐나다 연방정부는 해외시장 접근 확대라는 목적을 위해 WTO, OECD를 통한 다자간 협상으로 무역장벽 해소와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한 규칙 강화 등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아울러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양자협상을 통해 지속적인 교역확대를 더욱 강화할 것임.

3. 한·캐나다 경제현안

가. 개요

□ 1990년대 들어 양국간 관계진전에 힘입어 현재 양국간의 총교역은 최근 10년간 두배 이상 증가하였는 바, 2002년 양국간 총 교역규모는 약 42억 달러를 기록, 한국은 캐나다의 8번째 수출 및 수입시장으로 부상하였음.

- 특히 1993년 한-캐나다 특별동반자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적, 질적인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음.

- 1998년 한국의 경제위기 여파로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대폭 감소되고 무역규모도 축소되었음. 그러나 최근 한국이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 양국간 무역규모가 늘어남.

- 양국간 무역수지는 1991년 이후 적자로 반전되었으나, 2000년 원자재 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수 년째 지속되어온 적자가 다시 흑자로 돌아섬.

- 2002년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약 23억 달러, 수입은 약 18억 달러로 약 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3년 1~7월중 대캐나다 자동차,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의 품목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0.2%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

- 동기간 대캐나다 수입은 석탄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제지원료, 알루미늄, 목재류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한 10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대캐나다 무역수지는 약 3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

- 한-캐나다 양국간의 교역품목을 살펴보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한 통상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캐나다의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유연탄, 목재펄프 등의 자원 및 1차산품과 통신용기기 등의 하이테크 상품이며, 한국의 대캐나다 주종 수출품목

은 과거의 경공업 소비재 등에서 선박, 자동차, 철강, 통신기기 등의 중공업 및 첨단 공산품으로 바뀌고 있음.

□ 양국간 투자규모 역시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간 산업 및 과학기술협력 증진에 따라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對캐나다 직접투자는 주로 제조업 및 자원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바, 지난해 직접투자 규모는 2,49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한국의 총해외직접투자의 1.7%(2002년 7월 현재 누적기준)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음.

- 캐나다의 對한국 투자는 제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1998년 이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0년 투자유입액은 2억 8,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총외국인직접투자의 약 2.0%(2002년 7월 현재 누적기준)를 차지함.

나. 주요 통상현안

□ 현재 한-캐나다간에는 높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통상현안이 대두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캐나다는 주요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생수(Bottled Water)문제

- 캐나다는 여전히 생수수입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검사기준 및 유통기한 요구조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

- 캐나다는 생수에 대한 매 선적분 검사와 48종류의 과도한 검사기준 완화 및 지나치게 짧은 유통기한을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할 것을 요구.

- 우리측은 운송시 기후조건에 따른 수질차이로 매 선적분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품질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조건으로 1995년 7월부터 유통기한 연장.

<캐나다의 한국 주요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현황>

규제 품목	규제 내용
▲ 아연도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1994년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999년 7월 산업피해 재심에서 피해 긍정판정을 내림에 따라 동조치 연장 · 포철이 1998년도에 정상가격 이상으로 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ITT는 수출량이 미미해 결정적인 심사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
▲ 탄소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는 1983년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998년 3차 재심에서 피해긍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반덤핑조치 계속 연장중
▲ 유정용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991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친 재심에서 피해긍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반덤핑조치 계속 연장중 · 1990~95년까지 캐나다 수출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재심에서 피해긍정 판정을 받음
▲ 열연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999년 5월 1차 재심에서 피해긍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반덤핑조치 계속 연장중 · 한국이 동제품 초과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데다 한국내 시장이 작고 주요국가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만 회복되면 향후 언제라도 덤핑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긍정 판정을 내림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이외에도 우리는 캐나다에 대해 삼계탕 및 재생타이어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우리에게 1995년 이후 물개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음.

- 또한 캐나다 측은 사료용 완두콩, 평지유 등의 수출이 한국으로부터 관세상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국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콩에 대한 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
- 한·캐나다간 경제협력 현안으로 항공인증협력과 상호인정협정(MRA)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양자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

다. 한-캐나다 특별동반자 관계

- 한국과 캐나다간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치된 한-캐 특별동반자관계 작업반(SPWG : Korea-Canada Special Partnership Working Group) 제11차 회의가 2003.9.18(목)~19(금)간 오타와에서 개최될 예정임.
- 동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및 산업자원부 등 관계관이 참석하며, 캐나다측에서는 데이비드 멀로니(David Mulrone) 외교통상부 아시아, 태평양·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농업식품부 및 식품검사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참가할 예정임.
- 금번 회의는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장접근소위원회와 동 소위원회에서의 통상현안 협의 결과와 함께 양국간 교역확대, 경제 및 통상 협력 채널 강화 방안 및 다자차원에서의 협력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동반자관계 작업반회의로 나누어질 예정임.
- 시장접근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우리측에서 KT 통신장비조달 문제, 철강 수입규제 조치 종료 문제 등을, 캐나다측에서는 광우병 발생 관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 사료용 완두콩 및 유채 조유 관세율 인하 문제 등을 각각 제기할 예정임.

- 동반자관계 작업반회의에서는 상기 양국간 통상 현안과 양국 경제 정책 방향, 한-캐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양자 경제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무역 통계 조정 프로젝트, 한-캐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등 항공 분야 협력, Working Holiday Program상 캐나다 방문 우리 청소년 쿼타 확대 문제와 APEC에서의 협력 강화 문제 및 우리의 미주개발은행 가입 관련 캐나다측 지지 확보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금년은 특히 한-캐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하여 금번 작업반회의에서는 양국간 경제 및 통상 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라. 한-캐나다 경제관계의 중요성

- 한-캐나다와의 경제관계는 1993년 “특별동반자 관계”수립을 계기로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미국과의 관계에 비해서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1993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캐나다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94년부터 개최되어 온 한-캐 특별동반자관계 작업반회의는 양국간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유용한 채널로 운영되어 왔음.
- 그러나,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캐나다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캐나다는 자원개발과 고부가가치 기술산업에 주력한 탓에 대부분의 소비재와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크게 부상할 수 있는 지역임.
- 특히 캐나다가 총 인구 3억, 세계 전체 GDP의 36%, 교역의 19%를 차지하

고 있는 NAFTA의 회원국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 할 때 향후 더욱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캐나다와의 경제관계를 현재보다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최대의 이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